

#1

대한민국 '국가전략산업' 디지털플랫폼정부

글. 고진 대통령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그림 1. 디지털플랫폼정부 시대적 배경

인공지능과 데이터의 시대, 대한민국 새로운 도약의 기회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 배경

대한민국은 격변의 시기마다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삼아 발전해 왔다. 인터넷 시대와 모바일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한 대한민국은 IT 강국으로 도약하였고 세계 최고의 디지털 정부를 구현해 냈다. 이제 우리는 데이터와 인공지능으로 경제·사회 전반을 재편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인공지능·데이터 시대를 마주하고 있다.

문명사적 전환기에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글로벌

모범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정부 운영에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대한민국은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제시하였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컴퓨팅 등 빠르게 진화하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사람 중심의 정부, 과학적이고 투명한 정부, 민간 부문의 성장을 지원하는 정부를 만드는, 국정운영 방향의 근본적 혁신 전략이다.

이처럼 정부가 새로운 혁신전략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제시한 배경 중 하나는 지난 몇 년 동안 민간 플랫폼 기업이 제

그림 2. 디지털플랫폼정부 비전 및 추진관제



공하는 맞춤형 서비스에 익숙해진 국민 기대수준에 대한 고려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가속화된 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를 크게 바꾸어 놓았다. 이에 정부는 높아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선제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근본적인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새로운 혁신계획 수립을 추진했다.

그 결과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지난 4월, 국민이 불편함을 느끼는 요소를 모두 없앤 ‘국민행복 플랫폼’, 국민을 중심으로 모든 정부 기관이 원팀으로 뛰는 ‘정부혁신 플랫폼’, 그리고 기업에게는 무한한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업 성장 플랫폼’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내용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을 발표했다.

국민 중심, 원팀 정부, 민간 성장플랫폼...

디지털플랫폼정부 중점 추진과제

대한민국 정부는 ‘인공지능과 데이터로 만드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다음 과제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오직 국민을 중심에 놓고 모든 정부 서비스를 재설계하여 ‘국민의 소소함 일상부터 특별한 순간까지 챙기는 정부’를 추진한다. 국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더 이상 이곳저곳 찾아다니지 않고 한 곳에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몰라서, 바빠서, 절차가 복잡해서 당연히 누려야 할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국민 맞춤형 ‘혜택 알리미’를 운영하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에 맞춰 안내할 계획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데이터로 일상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복지, 재난 등 사회 현안을 획기적으로 해결하는 ‘국민 드림 프로젝트’도 가동 중이다.

둘째, 정부 내부, 정부와 민간 사이 칸막이를 없애고 하나의 팀처럼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똑똑한 원팀 정부’를 구현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을 기본으로 행정체계 전반을 재설계하고, 데이터 활용을 가로막는 법령도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중요한 정책은 반드시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한 데이터 분석을 거쳐 추진하고, 세계 최초로 정부 전용 초거대 AI를 도입하여 정부 행정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높여나갈 것이다. 그리고 민간과 공공의 데이터와 서비스를 융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DPG허브’ 등 혁신 인프라를 구현하고, 정부 서비스를 최신, 최고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 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에도 속도를 낼 것이다.

셋째, 디지털플랫폼정부를 민관이 함께하는 성장플랫폼으로 만들어 그 자체를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초연결 디지털트윈을 구축하여 AI·데이터 산업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과 기업이 원하는 핵심 데이터를 신속하게 개방할 것이다. 또한, 민간의 역량으로 정부 서비스를 혁신하는

그림 3. 디지털플랫폼정부 허브 개념도



GovTech 산업을 육성하고, 공공서비스를 개방하여, SaaS 등 GovTech 기업을 2026년 1만 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역량이 지역으로 확산되도록 '권역별 DPG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협업체를 구성하여 지역의 혁신도 지원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만들기 위해,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 권리를 강화한다. 자신의 정보가 언제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고, 국민이 원하면 개인정보를 필요한 곳에 보낼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 유통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데이터가 개방되고 공유하는 환경에 맞춰 제로 트러스트, 공급망 보안 등 새로운 보안체계를 도입하고, 다양한 신기술을 공공에 적용하여 새로운 보안 시장을 창출하고 글로벌 표준도 선도할 것이다.

데이터 개방, 기업 마이데이터, DPG허브 등 기업 성장의 기회 제공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 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올해부터 핵심 추진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특히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실현 계획에 포함되어 있어, 기업들의 관심이 높다.

먼저 개방과 연결을 통한 혁신 창출이 핵심인 디지털플랫폼 정부는 민간의 수요 높은 데이터를 개방할 계획이다. 공공데이

터의 개방 규모는 급증했으나, 공무원의 소극적 태도와 개방 제한 법령 등으로 민간의 수요가 높은 데이터 개방은 여전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같은 데이터도 개방하는 항목이 상이하거나 조각난 형태로 개방하고 있어 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에 '데이터 개방 발굴단'을 운영함으로써 데이터 개방, 활용에 걸림돌이 되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수요자가 원하는 데이터가 원하는 방식으로 개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우선적으로 금년부터 '사업자 등록번호'와 '자동차 등록정보'를 개방하고 확산할 예정이라 데이터를 융합, 활용하려는 기업에게 기회가 될 것이다.

다음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가 구현되면 기업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정부지원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알려주는 혜택알리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중소기업 지원 사업은 1,695개로 36개 기관이 36조 원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정착, 지원이 필요한 기업들은 현업이 바쁘고 자신에게 맞는 혜택을 찾아서 신청하기 어렵다. 기업 마이데이터로 불리는 이 서비스는 기업의 동의 하에 정보를 분석하여 가장 적합한 지원 정책을 정부가 알아서 추천하는 방식이다.

또한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 인프라로 구축 예정인 'DPG 허브'는 민간·공공의 데이터와 서비스를 연결해, 융합·활용할 수 있는 통합플랫폼이다. 구체적으로 데이터레이크 등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데이터 융합 인프라'와 각 부처가 따로 개발해 사용하던 기능과 서비스를 범정부 차원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공공서비스 빌딩블록', 공공에서 민간 초거대 시를 쉽게 쓸 수 있도록 하는 '초거대시 활용 인프라', 그리고, 혁신 서비스를 개발하고 시험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플레이그라운드)' 등으로 구성된다. 기업은 DPG허브 인프라를 바탕으로 창의적이며 혁신적 서비스의 개발·제공이 가능해진다. 국민은 새로운 형태의 공공서비스를 경험하고, 민간 기업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생태계의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스타트업이 DPG허브에 있는 경찰청의 교통정보(공공)와 내비게이션 업체에 저장된 개인 운전습관 자료를 분석해 맞춤형 안전 노선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국민은 새롭고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식이다.

이 외에도 국민, 기업, 정부가 협업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민·관 협업플랫폼(DPGcollab)을 구축하여 환경, 재난, 저출산, 일자리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민간 기업의 혁신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목표

디지털플랫폼정부는 다양한 핵심 추진과제를 단계별로 차질없이 진행하여 2026년에는 다음과 같은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대표적으로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를 연계·통합하여 국민은 한 곳에서 일 처리가 가능

하게 되고, 민원 첨부서류 제출을 제로화하여 연간 2조 원 상당의 국민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게 된다. 또한 공공부문의 종이 사용량을 50% 감축하고 정부 시스템은 70%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전환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계량적 성과뿐만 아니라 정부는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것이며, 지역의 동반 성장도 함께 모색할 것이다. 우리의 기업은 혁신적인 비즈니스를 창출하여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게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통해 진정한 국민 주권 시대를 열어간다는 목표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부와 민간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세계적인 글로벌 표준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는 희망찬 도전이다.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나라, 인공지능으로 24시간 똑똑하게 봉사하는 정부, 국민과 기업이 더 크게 도약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디지털플랫폼정부가 만들어 갈 것이다.

...	저자소개	↗
<p>고진 대통령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시러큐스대에서 컴퓨터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1994년 ㈜바로비전을 창업해 순수 국내 기술로 세계최초 모바일 VOD 상용서비스를 실현하였다. 이후 국가과학기술심의회 ICT융합전문위원회 위원장,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였으며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 회장,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회장으로 스마트콘텐츠, 모바일 앱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였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 태스크포스(TF) 팀장을 거쳐, 2022년 9월에 출범한 대통령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현재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활동 중이다.</p>		